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하나 된 건축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지원센터
Tel 02)3415-6840
Fax 02)3415-6898
kira100@kira.or.kr

ISSN 2636-1078

2006년 9월 9일 창간 안내 (02)3416-6962~6 ancnews.kr 제402호 2023년 7월 25일

협회 의무가입 두 번째 설명회, "외적으로 위상 강화 및 국가정책 대안 제시, 내적으로 회원 편익 도모에 전력"

대한건축사협회, 설명회서 중장기 계획과 실천방법 제시

"새 윤리규정은 건축사 위상 재정립하는 의미"

지난 18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두 번째 의무가입 설명회가 예비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18일 협회 가입에 대한 안내와 이해를 목적으로 의무가입 대상 건축사(예비회원)들을 위한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설명회에는 예비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석정훈 본협회장은 "건축사가 하는 일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단체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등 의무가입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의 자성과 함께 도약을 위한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석정훈 회장은 이어 "협회는 장기정책과제로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동반자, K-건축 이라는 어젠다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내적으로는 회원 아카이브 라운지 등을 통해 회원의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해 안정적인 협회 재정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특히 민간대가 기준 건축사법 개정 등 법제과제 역시 회원의 눈높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성준 부회장의 협회 소개 및 가입 안내가 진행됐다. 박성준 부회장은 "협회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건축법령 유권해석 ▲건축분쟁 상담 ▲건축 전문 교육 ▲발간 ▲구직활동 지원 ▲사회공헌 ▲회원 동호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며 "건축사사무소 운영 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회원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인선 건축사(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새 건축사 윤리규정 무엇을 담고 있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 3면 계속

FOCUS – 반복되는 지하공간 참사 해소방안

침수·화재 등 빈번한 지하 공간 사고, 안전한 이용 위한 건축적 접근 필요

설계 단계서 지하 공간 재해 대응력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효과'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인근 제방 일부가 붕괴되며 하천 물 6만톤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일어났다. 소방 당국은 고립된 인명 구조를 위해 분당 3만리터를 배수할 수 있는 방사 시스템을 투입했지만 계속된 비와 하천 물 유입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지하 공간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8월엔 서울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반지하 빌라 일가족 3명이 숨졌고, 9월에는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인근 하천 물이 넘어들어 입주민 7명이 사망했다. 지하에 주차된 차를 옮기라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2020년엔 집중호우로 부산 요양병원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6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2016년 태풍 차바 당시엔 울산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명이 익사했고,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등에서 12명이 숨졌다.

작년에는 대전 현대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7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잇단 지하 공간 참사는 지하 공간이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일깨운다. 그럼에도 최근 건축물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하를 깊게 파 땅 지형이 오목해지고 물이 고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지하주차장 침수와 같은 지하 공간 사고도 빈번해 지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공간은 용적률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깊고, 넓게 구축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국토교통부 2017년 5월에서 2022년 7월 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총 4,174 건 중 지하 1층이 34.8%, 지하 2층이 36.4%, 지하층이 없는 아파트는 단 6건에 불과해 약 99.86%가 지하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면 계속

미가입 건축사, 협회 입회비 총 4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에 따라 법정 의무가입 기한인 올 8월 3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미가입 건축사가 협회 입회 시 납부해야 하는 입회비(200만 원)를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협회 미가입 건축사 중 법정 의무가입 기한 이내에 입회하는 정회원이 입회비를 분할납부 희망할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총 4회 이내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5면 계속

사 설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 건축사

건축은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예상되는 일들과, 건축주가 그 공간을 사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건축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한다. 그리고 미래에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증축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심지어는 수명이 다하고 해체될 때는 어떻게 분해되고 재활용될 수 있을지까지 수많은 부분들을 예측하여 계획해야 한다.

건축주의 요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낮은 확률이라도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을지를 상식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며, 각종 법규에 적합하게 계획되고 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인문학적, 수학적 사고가 기반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수련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년제 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 방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가지는 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소양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거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그 후에도 건축주들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건축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때로는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년 전부터 얼마 전까지 겪었던 감염성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도 많은 건축물의 동선과 설비가 달라져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축에 관련된 최고 전문가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다. 또한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비바람과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기준도 과거의 설계 기준에만 맞추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듯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예측하며 계획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전문가로서 건축사라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며 그만큼 많은 책임도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아한 부분들이 자주 찾아진다.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맞춰 계획한 근린생활시설 입면은 임대인이 선정한 인테리어 시공자에 의해 교체되기도 하고, 무자격자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옛 건물을 대수선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TV와 잡지에도 무자격자가 건축 전문가로, 설계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여전히 찾아져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다른 전문직에 비해 건축분야는 전문가의 구분에 대한 명확성이 낮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법적 기준이 버젓이 있는데도 시공사 면허를 대여해 주겠다는 팩스는 계속 전송되어 오고 있다. 건물을 짓기 위해 여전히 시공사를 먼저 찾아가거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먼저 찾아가는 건축주들이 있다. 건축사 스스로의 경험과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과 건축사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문가를 전문가답게 해줄 것이다.

시 론

건축스케치를 통해 나만의 건축이야기를 담아보자

이현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두이건축

실력을 쌓아두면 결국 필요할 때 꼭 쓰임 받게 돼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감사한 일

건축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스케치를 병행하면서 진행하면 건축사, 디자이너, 클라이언트들과 디자인 방향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효율을 높이고 시간 단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축스케치 방법은 크게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케치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수작업으로 스케치하기 위해서는 280g 이상의 A4 스케치북, 건축물 외곽선을 표현하는 다양한 펜(피그먼트 라이너 등), 그리고 건축물 등 컬러 표현을 위한 물감, 크레파스, 물통 등이 필요하다.

표현방법에는 펜 등을 이용해 단일 컬러로 표현하는 방법과 물감 등으로 컬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단일 컬러 등으로 건축스케치를 표현하면 건축물 디자인의 특징을 담백하면서 정확히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컬러로 표현하면 현실감과 현장감을 살릴 수 있다. 각각 건축물 특징을 펜과 물감으로 표현방법을 달리해 개성 있게 표현하면 된다. 스케치는 포토샵, 스케치업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릴 수 있다. 프로그램들은 각각 2차원, 3차원 표현이 가능한데 프로그램별로 장단점을 확인하고 스케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포토샵은 2차원, 스케치업 등은 3차원 표현에 적합하고 서로 호환하면서 스케치할 수 있다.

건축스케치 방법에서 첫 번째 기본은 라인과 해칭을 그리는 것이다. 라인은 건축물의 외곽선을 그리는 것이고 해칭은 라인 안의 재료 마감이나 구성요소를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축스케치를 하면서 수작업,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작업 모두 기본적으로 1소점, 2소점, 3소점 및 다소점과 같은 소실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실점이란 물체의 끝을 따라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점으로, 투시원근법을 쓸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소점 스케치는 실내스케치에 적합하며 말 그대로 소실점이 하나인 스케치다. 소실점이 두 개인 2소점 스케치는 건축물 외관 스케치의 기본이 된다. 3소점 스케치는 고층건축물 등의 스케치를 표현하는데 편리하다. 이 단순한 기본 원리는 건축스케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이해해야 한다.

건축스케치는 스케치 자체만으로 작품이 될 수 있다. 정성이 담긴 스케치 한 점 한 점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의 과정이자 작품이다. 필요에 따라 건축물 모형을 만들 수도 있다. 건축 스케치는 건축물 모형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간략한 건축 스케치로 대안을 만들다 보면 여러 대안 모형 등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일몰, 일출 때 건축물의 분위기, 자동차, 인파들로 변화되는 건축물 주변의 풍경 등 모형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스케치로 표현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건축스케치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요소이다. 또 스케치 자체로도 훌륭한 작품이 된다. 하나의 디자인 요소이기에 디자인 초기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까지 쓰일 수 있다. 좋은 건축물로 계속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증축 등을 하기 위해서도 디자인 프로세스상 건축 스케치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초기 디자인 프로세스부터 그동안 그린 건축 스케치를 모아 전시회를 하게 된다면 더욱 멋진 일이 될 것이다.

배움이란 나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방면으로 공부하며 실력을 갖춰두면 결국 필요할 때 꼭 쓰임을 받게 된다.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감사한 일이다. 건축디자인 프로세스 중 기초이자 기본이 되는 건축스케치를 통해 나만의 건축이야기를 담아보자.

▶1면〈협회 의무가입 두 번째 설명회, "외적으로 위상 강화 및 국가정책 대안 제시, 내적으로 회원 편익 도모에 전력"〉에서 계속

함인선 건축사가 '새 건축사 윤리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건축사들이 높은 사회적 위상을 가지며 존경을 받는 까닭이 높은 수준의 윤리규정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함인선 건축사는 "건축사 윤리규정은 건축사의 직업윤리로서 인간의 존엄성 등 고전적인 윤리의식과 함께 환경위기와 에너지 문제, 사회·인문학적 도시문제를 포괄하는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능으로서 건축사 위상을 재정립하는 의미가 있다"고 윤리규정 제정의의를 밝혔다.

박춘하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장은 법령질의, 유권해석, 고충민원,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회원지원센터와 건축사 윤리 위반, 협회 부조리 조사, 허가권자·발주관청 불공정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부조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다 탈회 후의 재가입과 입회비 부담 등 회비 납부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박성준 부회장은 "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의 입회비 인하가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협회 이사회에서 분할납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하며 "재가입 회원들도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놨으니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가입 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작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는 개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당시 협회 미가입한 대표 건축사는 오는 2023년 8월 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라운지 아카이브홀 인테리어디자인 공모전

황정은 건축사(제이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회관 1층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당선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라운지 아카이브홀 인테리어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심사위원회, 공간 상징성·활용도·아이디어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당선작 선정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와 디테일이 좋은 작품"

▶ 수상자 명단

◦ 협회장상(1작품)
- 황정은 건축사, 제이이건축사사무소 / 시상금 1,500만 원

◦ 가작(2작품)
- 신병민 건축사, (주)무주건축사사무소 / 시상금 200만 원
- 정지영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양양 / 시상금 200만 원

◦ 특별상(4작품)
- 최순곤 건축사, (주)에이더스건축사사무소 / 시상금 100만 원
- 이동근 건축사, 공간나눔건축사사무소 / 시상금 100만 원
- 여상권 건축사, 모아건축사사무소 / 시상금 100만 원
- 양형모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아키필드 / 시상금 100만 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심사위원회가 총 네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황정은 건축사의 '나의 아뜰리에'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건축사회관 1층에 설치되는 '아카이브 홀'은 회원이 협회를 방문할 때 회원 편익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무가입을 맞아 건축사회관을 보다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대 심사위원장은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는 건축사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이곳을 미래 세대인 신진건축사가 설계하고 완성해 더 의미가 클 것"이라며 "건축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한 전시, 작업, 회의 등 다양한 공간 제안이 많았으며, 협회의 커뮤니티 특성과 기능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한 우수성이 돋보였다. 공개 공지와 전면테라스 활용 방안 등 좋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다"고 총평했다.

심사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상징성, 공간의 활용도, 디자인적인 아이디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협회장상의 황정은 건축사의 '나의 아뜰리에'를 두고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와 디테일이 좋은 작품"이라고 평했다.

가작은 신병민(주.무주건축사사무소), 정지영(건축사사무소양양) 건축사에게 돌아갔다. 특별상은 최순곤(주.에이더스건축사사무소), 이동근(공간나눔건축사사무소), 여상권(모아건축사사무소), 양형모(주.종합건축사사무소아키필드) 건축사가 받았다.

한편 이날 심사는 박성준(주.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 이상대(주.스페이스연 건축사사무소), 김철훈(디오21 종합건축사사무소), 강병수(길건축 건축사사무소), 홍성용(건축사사무소 NCS lab), 박정연(그리드에이(Grid-A) 건축사사무소), 윤규섭(주.씨와이 건축사사무소), 천의철(주.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 건축사가 진행했다.

조아라 기자

▶1면〈침수·화재 등 빈번한 지하 공간 사고…〉에서 계속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지하 공간의 재해 대응력이 관건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건 현장 감식 모습 사진=뉴스1

물론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지하공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

건축법은 하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이 물막이 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차수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등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별도로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항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위험지구에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침수위험지구에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해야 하며, 차수판, 역류방지 밸브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 공간 재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해 현재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건축주가 방재지구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자체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 방안도 있다. 지난 7월 18일 수해 예방 건물에 지자체가 최대 1.4배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마련한 방안인데, 제도화 되는데 약 1년여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구 지정기준 정비도 필요하다. 현행 건축물 설비기준규칙은 방재지구와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만 물막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작년 10월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지하 공간 침수와 관련 있는 침수위험관리지구는 전국적으로 635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의 경우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방배동 단 3곳 뿐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침수피해 자료 등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재지구 및 침수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건축사도 "2017년부터 지하공간의 수방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됐지만 오래 전 지어진 건물의 지하 공간은 홍수 피해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또 최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오면서 화재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지하 공간 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상습적인 침수지역, 싱크홀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안전한 지하 공간 활용을 위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박관희 기자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로 침수 당시 CCTV 모습 사진=뉴스1

ISSUE 최근 제주교육청 설계공모서 심사위원 사전접촉 비위 행위로 심사위원회 재구성

"공모 공정성 확보방안 더해 사전접촉에 대한 심사위원 자발적 제보로 비위 행위 차단…제주 설계공모 문화 개선해나갈 것"

제3대 제주도총괄건축가 선은수 건축사 인터뷰

제주, ①비공개심사에서 공개심사로 전환 ②'도외 인사' 포함 심사위원풀 다양화 ③유튜브 생중계 등 설계공모 선진화 개선 노력

지속적인 심사 모니터링 및 공정성 확보방안 실행뿐 아니라

설계공모 제대로 작동하려면 심사위원 공정성·투명성 노력 있어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고한 한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 비위 행위 제보가 이뤄져, 결국 심사위원회가 재구성된 일이 있었다. 지난 2월 27일 공고된 '제주도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참여사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가 하락하고 공공건축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며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 폐단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제주 사례처럼 모든 심사위원들이 응모자의 사전접촉 시도가 이뤄질 때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응모자들도 로비보다는 심사장에서 작품으로 경쟁하는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제주총괄건축가 선은수 건축사로부터 어찌된 일인지 자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Q. 최근 제주도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심사 관련하여 심사위원 3인의 사전접촉이 있다고 발언해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설계공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서귀포시 호근동에 기존 교사동을 해체하고 새로운 그린스마트학교로 신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설계비 9억9천만 원, 지하 1층, 지하 4층, 연면적 10,000㎡ 규모입니다. 지난 2023년 3월에 응모접수를 마감하여 38개 업체가 참가 등록했으며, 5월 최종 마감 결과 13개 업체가 접수했습니다.

기술검토와 1·2차 작품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차 작품심사 전 일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사전접촉 시도가 있어 심사위원 회피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문의가 있어 전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접촉이 있었는지 제보 요청한 결과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사전접촉 관련한 직·간접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총 13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어 3명의 심사위원 동의 하에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발주처 및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가 모여 향후 처리방침을 논의했고, 기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진행

제3대 제주도총괄건축가 선은수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심사위원회에서 6개 업체의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공모지침을 위반한 게 명백하므로 실격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Q. 공공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가 심해졌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번 사례가 현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제주 공정 설계공모를 위한 후속 방안이 있을지요.

그동안 설계공모 심사에서 공공연히 있어왔던 로비행태가 지속 발생해도 심사위원과 참가자 사이의 학연·지연 등의 이유로 쉬쉬하고 넘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가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여타 시도보다 공정성·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 효과로 많은 건축사들이 공모에 참여해왔습니다. 그 결과 훌륭한 공공건축물들이 선정되어 제주공공건축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이번 사례와 같이 심사위원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이끌어내 제주의 설계공모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제주 설계공모제 운영 관련한 제주만의 강점이 있는지, 또한 제주총괄건축가로서 제안사항이 있으시다면.

제주는 2020년 2월부터 도입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운영과 보다 많은 훌륭한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공모운영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공개심사에서 공개심사로 전환한 것을 비롯해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대학교수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심사위원을 총괄건축가와 운영협의체에서 추천한 도외 및 도내 전문 인력으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가 참여하는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심사장을 구축해 유튜브 생중계해 누구나 심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표자는 블라인드 발표를 하도록 개선하고, 기술검토에 따른 참가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사결과에 여러 잡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면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점은 설계공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Q. 제주 공공 건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공공건축가 1, 2기 운영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 발주와 관련해 공공건축가가 사전검토·자문·기획에 참여해 사업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해 좀 더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마쳤고, 도시의 유휴공간을 찾아내어 시민의 공공공간으로 제안하기 위한 공공성지도 1·2·3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로 집행 중인 도시계획 및 토목사업에 대한 제안도 적극적으로 해 그동안 당연시했던 토건사업들의 패러다임도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장영호 기자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 건축사 업무 관련 윤리 및 부조리
◆ 건축사 자격 관련 부조리
◆ 협회 조직 관련 부조리
◆ 허가권자 및 발주관청 불공정 행위

■ 신고방법(인터넷 신고 접수)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
↓
알림·참여 광장
↓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대한건축사협회 법제관리팀(02-3415-6839, 02-3415-6860)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안내

2023년도 현재 관리받고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력관리비를 납부하시고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관리 납부방법**
- ㅇ 온라인 : 건설기술인 인터넷경력신고 홈페이지(work.kira.or.kr)
  건설기술인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cert.kira.or.kr)
- ㅇ 오프라인 : 본 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통한 납부

□ **미납자에 대한 제재**

2012년도 이전의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정기관리자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 ㅇ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 ㅇ 타 수탁기관 이관 및 경력수정, 경정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 ㅇ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 02-3415-6842~8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방재지구서 재해예방시설 설치 땐 용적률 1.4배 완화

국토부, 도시 재해대응력 강화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8일 공포·시행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여수시 한 요양병원 주위에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사진=뉴스1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의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개별 건축물 단위가 재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채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방재지구는 경기 고양 등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8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관희 기자

국토부, 우천 타설 막기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검토

국토교통부가 우천시 타설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공사 시방서 개정을 검토한다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

현행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천 타설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하는 책임기술자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들어, 판단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장마철 우천 타설은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물과 시멘트의 적정 비율을 바꿀 수 있어,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우천 타설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7월 13일 서울 동대문구청에 GS건설의 휘경 자이가 우중 타설을 진행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조아라 기자

▶1면에서 계속

미가입 건축사 중 법정 의무가입 기한 이내('23.8.3)에 입회하는 정회원 대상

납부기한은 입회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는 협회 입회 시 납부해야 하는 회비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입회비 분납을 희망하는 건축사는 협회 정회원 입회신고 서류와 함께 회비 분할 납부 신청서에 분납일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해 입회신고 때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재정국(02-3415-6811, 6820) 또는 사무소 개설지역 시도건축사회 '회원 및 회비수납 업무 담당 직원'에게 하면 된다.

장영호 기자

FOCUS 알기 쉬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내

헷갈리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살펴보기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23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두어야 향후 법 개정이 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본지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노무사(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현행법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정리해 봤다. **〈글·자료 제공=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 개정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
1. 근로계약서 작성 2.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명세서 교부 3. 주휴수당 지급 4. 해고의 예고 5. 퇴직급여제도 설정	1.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2. 공휴일 및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3.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 연차유급휴가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지난 6월 대법원은 주휴일(1주일에 한 번 주어진 유급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결정하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휴일에 일하지 않은 직원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연차휴가 발생 등)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컨대 2023. 8. 1.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3. 7. 1.부터 2023. 7. 31. 기간 동안 사업장을 21일 가동하고, 이 중 11일은 5명 출근, 10일은 4명 출근한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47명(={11일*5명 + 10일*4명}/21일)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① 산정한 결과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② 산정한 결과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사례를 기준으로 원칙적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는 4.47명이므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 적용기준(5인)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 21일 중 10일로 2분의 1 미만이므로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①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사업주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간제법」 제24조)

②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최저임금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③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 근로자가 5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④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적용이 제외된다. 사업주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⑤ 퇴직급여제도 설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 및 제1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

①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연소자(18세 미만)의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근로기준법」 제69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금지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③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각하된다.)

④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휴가 부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 질의회신 Talk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해당 여부 – 1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2023.7.10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회신

「주택법」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중 증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각주: 「주택법」제2조 제25호가목의 대수선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행위가 공동주택의 면적 외에도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 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법」제2조 제25호 나 조항은 면적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이며, 다 조항은 세대수 증가 및 이에 따른 수직증축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의 단순용도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2023.1.31

질의요지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시 별도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의2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 제1호의2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은 용도변경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회피하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용도변경 금지조건을 부여하도록 한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금지된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멸실의 의미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물 관리법 제2조	–	2023.4.19

질의요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완료 하였으나, 지하층 또는 기초를 존치하고 해체공사 완료 보고가 되었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전부가 해체·멸실되어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당초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건축물의 일부분에 대한 해체를 제외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 허가(신고)를 받고 당초 제외된 일부분에 대하여 제외하고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완료하였다면 해체계획서 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 바 「건축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고는 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일부분이 존재하는 바, 이는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멸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건축사업(建築士業) 규제, 각종 부당행위 제보 바랍니다

건축사업(建築士業) 관련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 업무수행 때 부딪히는 불합리한 법규나 관행·규정, 건축설계공모 관련 비리, 자격대여 등 부당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은 기획 시리즈로 엮어 보도할 예정입니다.

(02)3416-6962~6 news@kira.or.kr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공모전 8월 11일까지 진행
법령·부당 관행·평가 효율성 등 분야별 개선 제안 받아

▶ 공모 분야 및 세부 내용

분야	공모내용
불합리한 법령	·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 ·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장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규정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등
부담을 주는 관행	·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해석·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 · 과도한 보완 요구 등 협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 저가 재대행 등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관행 등
환경부 지원	·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 등 (예 : 국가·공공정보 개방, 자연환경조사 지원 등)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부담 해소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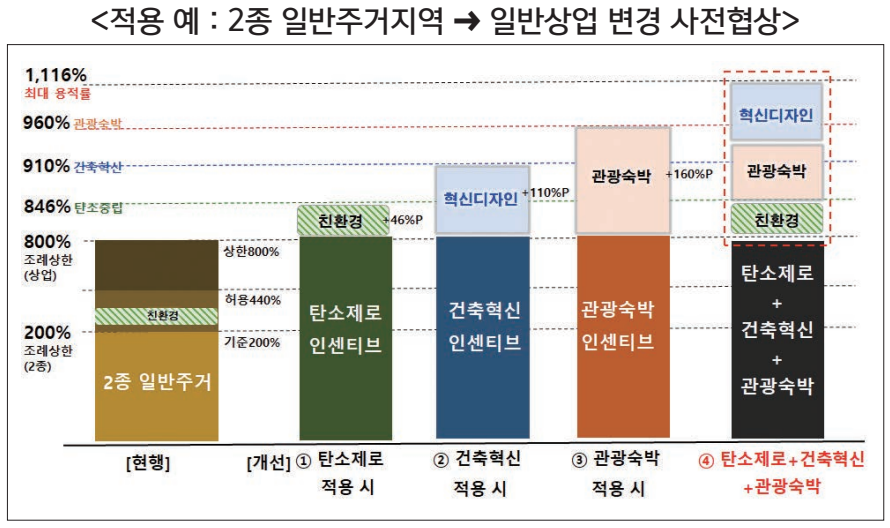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 받는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제안의 구체성,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응모 방법과 심사 절차 및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서울시, 건축혁신·탄소제로·관광숙박 인센티브 신설…중첩 적용 시 최대 330%p 용적률 완화

<적용 예 : 2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 변경 사전협상>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적용 사례

친환경·매력·관광 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건축혁신·탄소제로·관광숙박 인센티브 세 가지 항목이다.

세 가지 항목을 적용할 경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아울러 중첩 적용이 가능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30%p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먼저 '건축혁신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축혁신 대상지 선정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을 고려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된다.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의 경우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관광숙박 인센티브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량은 주변 도시경관 조화를 고려한 기반시설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다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돼왔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아라 기자

작년 대비 용도지역 면적 25㎢ 증가…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꾸준히 줄어

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허가 건수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따른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감소 영향 추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국토 중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6,232㎢였다. 그중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 미지정지역 21㎢(0.02%)이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전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효과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0㎢ 증가했으며,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125.9㎢(0.1%↑) 증가했다.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이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총 243,605건(2,01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5%(31,606건↓) 감소, 개발행위 면적으로는 2,010㎢로 9.9% (220㎢↓)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상승세를 보인 허가 건수는 2016년~2018년 정점(30만건) 이후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토지거래)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 137,615건(1,493㎢, 56.5%), 토지형질변경 64,710건(122㎢, 26.6%), 토지분할 27,190건(353㎢, 11.2%) 순이다.

조아라 기자

FOCUS ‘서울 힐튼호텔’과 건축문화 유산 보존

현대건축 유산 ‘힐튼호텔’, 건축문화적 가치 맥 이을 방안은?

한국 현대건축 상징물이자

40년 서울 숨결 깃든 건축유산 허물어서야…

힐튼호텔, 한국 현대건축 품격 한 단계 올려놓은 본보기

현대건축 기념비적 건축문화 유산 가능하면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전할 ‘스토링 텔링’ 만들어가야

프랑스 파리처럼 기존 시설 새로운 가능성 찾고

건축물 보존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 힐튼호텔은 미스 반 데어 로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김종성 선생(AIA)이 1977년 설계를 시작해 1983년에 준공된 건물로 한국 건축계의 1980년대 건축문화의 성취를 나타내는 유산이다. 사진출처=(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임준영 작가

18미터 높이의 창조적인 아트리움공간 디자인은 기능성과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공간 구성이 돋보이는 명품공간으로 꼽힌다. 사진출처=(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박호관 작가

‘서울 힐튼호텔’

우리나라 현대 건축을 대표하면서 한국 건축사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명품건축물이다. 건물 터가 한양도성 성곽 바로 옆, 남산 앞인 까닭에 장소성·역사성 논란이 있으나, 1980년대 건축미학과 건축사조 측면에서 당대 어느 건축물보다 진일보한 성취를 이뤘다는 점에선 이론이 없다.

1983년 준공돼 지난 40년간 서울의 자랑거리였던 이 호텔이 현재 부동산 재개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철거돼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을 두고 건축계 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내 한 자산운용사에 매각된 뒤, 신규 인수자가 호텔·오피스·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해서다. 지난 5월에는 호텔 소유주가 38층 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재개발 정비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호텔 상징이었던 1층 메인 로비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려 보전하되, 쇼핑몰(지하 2층~지상 1층)·오피스(지상 2층~29층)·호텔(지상 30층~38층)로 복합개발하는 안이다.

건축계는 ‘서울 힐튼호텔’은 건물이 갖는 수익성,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해버리기엔 건축의 가치와 역사 면에서 너무나도 아까운 건축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호텔이 건축사적 측면에서 수많은 국가에서 근대화 현대의 상징물로 인식되는 점을 감안할 때, 힐튼호텔은 수준 높은 완성도와 디테일로 한국 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이정표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서울 시민의 숨결이 곳곳에 깃들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가진 건축유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보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건축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힐튼호텔은 특히 당시 설계를 맡은 김종성 선생(AIA)이 ‘근대건축의 거장’ 미스 반 데어 로에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의 건축을 계승해 국제적 건축수준을 현대 한국건축에 소개한 본보기로서 그 가치와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박흥균 대표는 “내부 공간구성에서 18미터의 창조적인 아트리움공간 디자인은 당시 다른 대규모 호텔이 제공하지 못한 공공영역의 품격을 고양했다”며 “호텔 외벽 디자인은 당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패널 일변도의 1960년대, 1970년대 건축외관에서 탈피해 알루미늄커튼월로 건축됐으며, 미국 Flour City의 자문을 받아 국내의 일진알루미늄사가 제작·설치한 한국 최초의 완벽한 국제수준의 알루미늄커튼월”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힐튼호텔 건축문화적 가치 보전 권장함에 따라 개발 수익, 문화유산 보존 윈윈 전략 찾아야

물론 힐튼호텔이 사적 소유물(2021년 국내 자산운용사에 1조1000억 원에 매각)이라는 점 역시 부인할 순 없기 때문에 김종성 선생도 여러 매체를 통해 “수익성도 창출하고 건축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윈윈 전략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다른 방식으로 기존 건축물을 기억하거나 부분적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는 “▲현존 힐튼 호텔의 커튼월 외벽으로 구성된 매스 ▲브론즈 구조재 마감, 트래버틴 바닥, 녹색 대리석, 오크 패널링으로 마감된 18미터 높이로 구성된 아트리움 공간에 대한 보존”을 제안하며 “현 640실 호텔 용도의 건물에 새로운 내부기능을 넣고, 이번 힐튼호텔 재개발이 서울역 지역의 도시적 면모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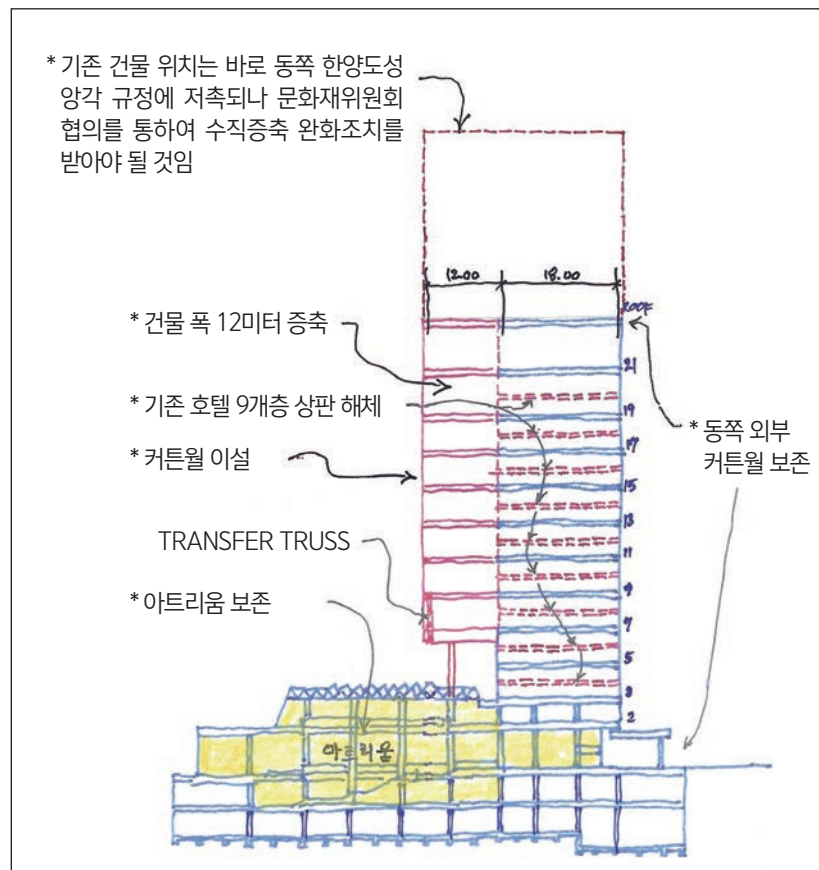
서울건축 박흥균 대표도 “서울시의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힐튼호텔의 건축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권장하고 있다. 힐튼호텔의 커튼월 외벽과 아트리움을 보존하면서 개발회사가 목표한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개발회사와 선발된 디자인팀, 서울시의 협력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울 남산 힐튼호텔과 같이 현대 건축의 중요한 기록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전통건축과 근대건축을 보수·보강·보존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서 있지만, 현대 건축은 그렇지 못해 전통·근대건축 논의만큼 어떻게 이를 흡수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집들이 현대에 맞게 안을 바꾸어 살아남는 것처럼, 기존 시설을 재해석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건축물을 보존하고 남기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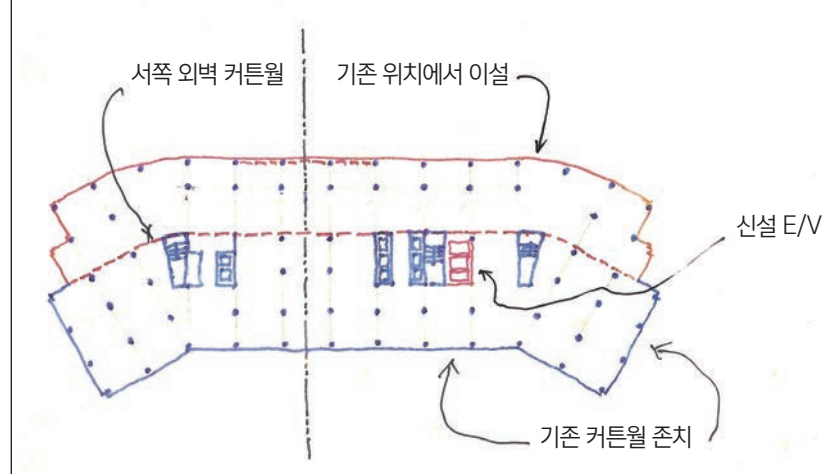
공교롭게도 최근 현대건축 보존과 그 방법론에 대한 이슈와 논의도 활발하다. 올해 3월에는 한국 현대건축사를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사의 작품 ‘프랑스대사관 업무동’이 한국 전통건축 미학을 살려 원형을 되찾아 복원된 바 있으며, 지난 7월 7일 김중업 건축사가 남긴 제주건축 유산이지만 1995년 철거된 ‘제주대학교 옛 본관’ 복원·재현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현대건축 유산 되살리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영호 기자

<서울 힐튼호텔 주요부분 보존안>



〈서울 힐튼호텔 주요부분 보존 개념단면도〉 ⓒ 김종성 미국 건축사



〈서울 힐튼호텔 신축 기준층 평면도〉 ⓒ 김종성 미국 건축사

1. 현 호텔 주변의 2.8미터 층고는 양동지구의 주거용도 비율을 상향조정해 아파트로 개조하든지, 주거용도의 증가가 안 되는 경우, 상업지역의 오피스텔로 개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
2. 현 건물의 상판을 하나 걸러씩 해체하고, 바람 횡력을 저지하는 구조부재를 첨가하여 5.6미터 층고의 공간을 형성하여 필요한 호텔 객실수를 수용하고, 잉여면적은 오피스 용도로 활용하는 대안이 있음
3. 현 호텔건물 옥탑층에 설치된 냉각탑은 신축되는 더 높은 건물 중 하나로 이설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루버로 마감된 옥탑층을 유리 외피로 개축하고 공공기능을 배치하여 투명하고 밤 시간에는 적정한 조도의 조명을 하여 소월길에 면한 ‘얼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안
4. 보존을 제안하고 있는 아트리움은 현재 폐쇄돼 있는 북쪽(볼 룸), 남쪽(구 양식당) 벽을 1층 천장 높이인 6미터까지 개방하여 신축건물들과 연결하고, 서쪽 방향을 서울 스퀘어와 적극 연결하는 것이 필요

REPORT 서울연구원

이동시간 줄여 삶의 질 높이는 전환적 도시계획 '보행일상권'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중 하나

근접성·다양성·연결성 키워드…시범사업 대상지 연내 선정

건축과 도시설계(Urban Design)는 불가분의 관계다. 도시라는 지역 사회 안에서 건축물은 구성원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시의 일부로 자리매김한다. 아쉽게도 산업화를 겪으면서 건축과 도시설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됐고 점차 그 간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여전히 건축적 섬세함을 필요로 한다. 도시만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는 기능적 구획이 아닌 디테일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한 건축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도시 풍경은 우리가 합의하고 만들어 낸 약속의 결과물이다. 그 풍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고 호오를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건축사신문은 우리를 둘러싼 도시 환경의 변화 추이를 따라가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축적 섬세함을 고민하려 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가 지난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살기 좋은 서울'의 실현 방안 중 하나로 보행일상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보행일상권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 생활권'의 개념이다. 주거지에서 15~20분 내로 일상생활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근접성, 다양성, 연결성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도시계획의 관점을 바꿔 이동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시급성·실효성·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보행일상권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생활권계획의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다. 시간 개념을 적용한 생활권 단위에서 공간계획을 수립해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서울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다양한 도시계획·제도 활용과 서울만의 특성 살려 이동시간 줄이고 삶의 질 높이는 보행일상권 실현'(이하 보고서)은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보행일상권에 대해 살펴봤다.

서울시 보행일상권은 일명 'N분 도시 정책'으로 불리는 시간도시계획에서 출발했다. 시간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의 관점을 전환했다. 기존 도시계획과 정비가 역동성과 효율성에 기반 해 도시를 확장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개념이다. 이동이 아닌 일상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은 도시와 시민의 삶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팬데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을 겪으면서 시민들은 이동시간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정책은 공간구조의 다핵화에 대응하며,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정책에 삶의 질을 반영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간도시계획은 도시와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했다. 프랑스 파리, 미국 포틀랜드, 호주 맬버른 등을 비롯해 부산에서도 생활보행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일상권의 핵심은 근접성, 다양성, 연결성이다. 우선 '나'와 주요 시설 및 거점, 타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일상의 필수적인 기능을 확충해 근거리에서 일상생활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 한다. 또한 용도 복합을 통해 지역 거점에서 일상생활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한다. 생활 SOC 시설의 복합화뿐 아니라 시간대 별로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보·자전거·마을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통한 높은 연결성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시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생활권 내 이면도로나 보행로 등에 대한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생활권 생활SOC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 800m 이내 범위에서 시설별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도 2019년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설정해 발표한 바 있다. 국가적 최저기준은 반경 500m부터 1,250m까지 시설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보행을 포함해 자전거, 마을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활용해 15~2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했다. 지역생활권 내 지구중심 입지를 고려해 서울시 보행일상권은 크게 네 곳의 생활권으로 구분된다. ▲한 개의 지구중심을 포함하는 지역생활권 27개소다. 도심권의 한남, 동북권의 면목, 성북·동선, 서북권의 홍제, 합정·서교, 서남권의 공항·방화, 흑석, 동남권의 개포·일원, 대치·도곡 등이다. ▲둘 이상의 생활권에 걸쳐있는 권역은 총 39개 지역권이다. 동북권의 미아, 구의, 서북권의 응암, 충정, 서남권의 고척·개봉, 노량진, 동남권의 암사, 가락 등이다. ▲지구중심 이외 상위중심지만 포함하는 지역생활권은 총 38개소다. 도심권의 소공·회현, 후암·용산, 동북권의 노원, 왕십리·행당, 서북권의 상암, 불광, 서남권의 여의도, 구로디지털단지, 동남권의 서초, 송파다. ▲중심지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지역생활권 12곳으로는 평창·부암, 정릉, 공릉, 하계, 이문·휘경·회기, 진관 등이다.

문제는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실현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 중심지체계는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설정됐다. 이 같은 위계적 중심지체계로는 '나'를 중심으로 작은 단위의 일상권역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기존 중심지체계와 일상 생활공간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생활권역마다의 특성·유형·기능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활권계획의 내용을 경량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116개 지역생활권 단위로 수립된 생활권계획을 자치구 단위로 통합·수립해 계획 내용을 경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다뤘던 내용과 동일한 부문별 계획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을 권한다. 무엇보다 보행일상권이 지역생활권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행일상권 도입을 '자치구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1단계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행 일상권의 시범 계획 수립 ▲2단계는 자치구 단위로 보행일상권 대상지 발굴과 사업 추진 ▲3단계는 자치구 단위 외 지역의 적용이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적용해 보행일상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 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대행기관<국토교통부 지정>

▶ 협회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탭 참조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 :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최초로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중 · 초급 : 70시간 - 특 · 고급 : 105시간
품질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 승급교육(전문교육)

직무구분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이수시간
설계·시공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고급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계속교육(전문교육)

▶ 각 직무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

직무구분		이수대상	이수시간
설계·시공		특급 건설기술인 / ① 현장배치기술인 / ②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02-3415-6842~8), 시·도건축사회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손현배 건축사(세종특별자치건축사회)

손현배 건축사 "의무가입 계기로 건축사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길 기대"

손현배 건축사(청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손현배 건축사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긴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래에는 건축사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미래에는 건축사가 단순히 학습된 데이터만으로 결과를 도출해서도, 주어진 공간을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해법으로 제시해서도 안 되겠죠. 앞으로의 건축사는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의 해석을 토대로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나아갈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손현배 건축사(청 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 업무에 대해 거시적인 생각을 말했다. 사무소 개소 1년차. 대내외적인 변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건축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합니다.

2020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22년 10월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개소를 준비하던 시기에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전망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건축사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사무소 개소 목표를 세웠던 만큼 대외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개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에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저희 사무소만의 경험과 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의무 가입이 올해를 기해 완성되는데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건축사가 되려 합니다. 창의라는 개념은 고민과 탐구가 밑받침돼야지만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건축사에게 설계를 위해 주어지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건축사는 그 공간 안에서 가장 적합한 쓰임을 찾고 구조, 기능, 미관, 환경적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간을 다각도로 보는 고민과 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셈이죠.

건축물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후하거나 사용목적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기도 합니다. 그런 건축물이 우리가 사는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는 고민과 탐구까지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손현배 건축사는 2023년도 세종 꿈마루 공간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초등학교 공간 구축을 진행했다. 사진=손현배 건축사

건축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밀접한 건축사의 업무와 건축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새롭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사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길 기대합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건축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설계대가가 낮고 무상으로 기획과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매년 오르는 것에 반해 민간대가는 정해진 설계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상황이죠. 협회에서 민간대가 기준 마련을 고민하는 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입이라는 전환점을 맞아 민간대가 기준이 빠르게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등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축·건설경기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됩니다만, 힘든 시기를 묵묵히 버티다 보면 금세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묵묵히 버티는 와중에도 모든 건축사가 일치단결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함께 완성해갔으면 합니다. 민간대가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꼭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조아라 기자

올해 하반기 LH 기술용역·공사 발주계획 총 8조2,000억 원 규모

설계 등은 174건, 금액으로 4,000억 원 수준

▶ 공종별 하반기 발주 계획 자료=LH

구분		건수	금액(조원)	비율(금액)
총계		638	8.2	100%
공사	소계	394	7.7	94%
	건축	82	3.8	46%
	토목	26	2.5	30%
	전기·통신·소방	189	0.9	11%
	조경	63	0.4	5%
	기타	34	0.1	2%
용역	**소계**	**244**	**0.5**	**6%**
	기술용역	174	0.4	5%
	일반용역 등	70	0.1	1%

하반기 LH가 신규 발주 예정인 공사·용역 규모는 총 8조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7,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LH는 하반기 건설산업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 지난해 대비 하반기 발주계획을 두 달 앞당겨 확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부문은 7조7,000억 원, 용역은 5,000억 원 규모이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3조6,000억 원 ▲간이형종심제 1조3,000억 원 ▲CM·턴키 등 2조 원 등이며, 용역부분은 ▲종합심사 3,000억 원 ▲적격심사 1,000억 원 등으로 용역 발주계획은 연 초 계획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공사 공종별 하반기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건축공사 3조8,000억 원(82건) ▲토목공사 2조5,000억 원(26건) ▲전기·통신·소방공사 9,000억 원(189건) ▲조경공사 4,000억 원(63건) ▲기타공사 1,000억 원(34건)이다.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이 4,000억 원(174건), 일반용역은 1,000억 원(70건)이다. 특히 7월에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아파트 건설공사가 발주된다. 발주 대상은 인천계양 A2BL과 A3BL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 단지다.

LH는 이번 발표한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주계획 세부내역은 20일부터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관희 기자

2023년 전국여성위원회 간담회 개최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계획 논의…동호회 활동 현황 공유

전국여성위원회 간담회가 지난 7월 3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3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여성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성기 위원장 등 본협회 여성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 17개 시·도건축사회 여성위원장이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본협회 여성위원회의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각 시·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와 동호회 활동 현황 및 현안을 공유했다.

한편 석정훈 본협회장은 2023 UIA 코펜하겐 세계건축대회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 인사말로 간담회 개최를 환영하고 격려했다.

박관희 기자

해외건축 NOW - 영국왕립건축사협회의 스털링상(THE RIBA STIRLING PRIZE), 미국건축사협회의 스몰 프로젝트 어워드(AIA SMALL PROJECT AWARDS)

공간의 목적성 살리고, 지향하는 가치 담은 설계 주목 받아

건축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한 번 건축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상시 사람들이 이용한다. 때문에 건축사는 설계에 앞서 건축물이 미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역마다의 특색과 환경이 다른 만큼 사회 전체를 조망해 보는 거시적 안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건축사신문은 매년 발표되는 주요 해외 건축상을 톺아보려고 한다. 대체로 건축상은 시대적, 사회적 경향성을 담은 작품을 선정한다. 건축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건축계가 지향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건축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영국왕립건축사협회의 스털링상(The RIBA Stirling Prize)과 소규모 프로젝트의 설계 우수성을 평가하는 미국건축사협회의 스몰 프로젝트 어워드(AIA Small Project Awards)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The RIBA Stirling Prize

RIBA 스털링상은 디자인 비전을 포함해 혁신, 독창성, 접근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평가한다. 특히 스털링상은 한 해 동안 영국의 건축 발전에 공헌한 건축사에게 수여된다. 금년도 수상자는 오는 10월 발표된다.

지난해에는 Niall McLaughlin Architects의 The New Library, Magdalene College in Cambridge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도서관은 17세기에 지어진 도서관의 비좁은 공간을 새롭게 대체했다. 벽돌, 박공지붕, 트레이서리가 있는 창문, 벽돌 굴뚝 등으로 현대적이면서도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뤘다.

2022년도 RIBA 스털링상은 Niall McLaughlin Architects의 The New Library, Magdalene College in Cambridge가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이 도서관은 재료뿐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건축사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RIBA

특히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건물 천장의 높이를 높였다. 벽돌 굴뚝의 규칙적인 그리드가 목재 바닥과 책장을 지지해 안정감을 주면서도 건물 내 공기를 순환시킨다. 4개의 굴뚝 사이에 아치형 랜턴 채광창을 설치했다.

도서관 열람실과 스터디룸을 격자 구조로 구성해 공간 활용을 했고, 독립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규칙적인 배열은 내력 벽돌을 활용한 수직 구조의 묘사, 스패닝 공학의 목재 수평 구조를 적용해 날실과 씨실 같은 패턴을 만든다.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마다 돌출형 창문도 설치했다. 목재 인테리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따듯한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RIBA 스털링상 심사위원단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이 도서관은 재료뿐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건축사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AIA Small Project Awards

2023년도 AIA의 스몰 프로젝트 어워드 수상작 중 하나인 Liberation Coffee House. 팝 아티스트 키스 해링(Keith Haring)에서 영감을 얻은 대담한 색상과 움직임, 그리고 프라이드 플래그(Pride Flag)에서 영감을 얻은 내부 팔레트가 인상적이다. 각각의 색은 LGBTQ+ 커뮤니티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활기찬 정신을 보여준다. 사진=AIA

AIA의 스몰 프로젝트 어워드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설계 우수성을 평가하는 상이다. ▲최대 건축비 25만 달러의 건축물, 환경 예술 작품, 건축 디자인 요소 ▲건설비용이 최대 250만 달러 내외의 소규모 프로젝트 건설 ▲16,529㎡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 건축물, 환경 예술 작품, 건축 디자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도에는 9개의 프로젝트가 이 상을 받았다.

Liberation Coffee House는 LA의 LGBT 커뮤니티 센터 내의 카페 겸 갤러리다. 이곳은 LGBTQ+ 청소년과 노인의 취업 준비를 돕는 사회적 기업의 공간이다. 설계를 진행한 지역 스튜디오 ORA는 지역사회의 안식처이자 센터가 지향하는 바를 공간에 담았다.

팝 아티스트 키스 해링(Keith Haring)에서 영감을 얻은 대담한 색상과 움직임, 그리고 프라이드 플래그(Pride Flag)에서 영감을 얻은 내부 팔레트가 인상적이다. 각각의 색은 LGBTQ+ 커뮤니티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활기찬 정신을 보여준다. ORA는 곡선을 건축 요소로 활용해 모두를 환영하는 센터의 특성을 구현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일몰을 연상시키는 다채롭고 얇은 패브릭 패널로 남쪽의 강한 햇빛을 완화했다. 패널은 설치가 간단해 직원이 손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다.

AIA 심사위원은 "공간이 밝고 경쾌하다"며 "후원자를 유치하는 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조아라 기자

MY 부동산 뉴스 격주간의 엄선된 부동산뉴스를 콕 집어 전달합니다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노후 도심의 주택 공급·주거 환경 개선 기대

▶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구분	사업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중동역 동측	경기(부천)	역세권	49,959㎡	1,536호
2	중동역 서측	경기(부천)	역세권	53,930㎡	1,680호
3	소사역 북측	경기(부천)	역세권	41,671㎡	1,350호
4	금광2동	경기(성남)	저층주거지	139,565㎡	3,056호
5	동암역 남측	인천	역세권	53,205㎡	1,800호

경기 4곳과 인천 1곳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친다. 향후 주민의 2/3 이상(토지면적 1/2)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조아라 기자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에 등기정보 표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방지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2023 젊은 건축가상'에 김영수(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김진휴·남호진(건축사사무소 김남), 서자민(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명 선정

김영수 건축사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김진휴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김남

남호진 미국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김남

서자민 건축사
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수리움(설계자 김영수,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사진=Joel Moritz

프로젝트 재해석(설계자 서자민, 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사진=신경섭

호숫가의 집(설계자 김진휴·남호진, 건축사사무소 김남) 사진=김남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제정해 매년 시상해온 '2023년 젊은 건축가상'에 김영수 건축사(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김진휴 건축사·남호진 미국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김남), 서자민 건축사(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3개 팀, 4명을 선정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모에는 총 46개팀이 지원했다. 심사위원장 이민아 건축사는 "건축사로서의 잠재적 역량과 사회적 역할, 참신한 개념 및 작품의 완성도, 문제의식과 독창적인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영수 건축사(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는 제주 숙박시설 '수리움', 단독주택 '나지요네', 둔촌하우스, 도산 알로하를 통해 "재료 본연의 성질, 건축 요소의 자리, 사물과 공간의 관계 등 건축 본질에 대한 집요한 탐색과 사유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조정한 치수의 힘을 현장에서 섬세하게 통솔하고, 완성도 높은 건축물로 실현해 가는 노력과 태도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건축사사무소 김남을 이끄는 김진휴 건축사·남호진 미국 건축사는 단독주택 '호숫가의 집', '프라콩뒤주택' 등을 설계했다. 심사위원회는 "건축에서의 아름다움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정의하고 치열하게 구조화하여, 시공자의 수고, 사용자의 기쁨, 건축사 스스로의 검열이 동반될 때 비로서 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에 당도했음을 성찰하는 태도로 '결국 건축사는 무엇에 헌신하는 사람인가'의 질문을 강력히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서자민 건축사는 대표작 콘크리트 도서관, 다세대주택 '모따기99'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로부터 "도시의 문제를 설계의도를 생성하는 단어로 예민하게 수용하고, 덩어리, 구축, 비움, 양감, 질감 등 건축의 기본어휘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제시하는 작업 과정이 젊은 건축사의 고유한 네러티브를 넘어 기성 건축계에 메시지를 주고 있다"를 평가를 얻었다.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작품 전시회 개최 ▲작품집 발간 ▲국내외 건축행사 참여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장영호 기자

내러티브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에스토니아 국제 설계 공모전 4위

타르투 다운타운 문화센터 국제 설계 공모, 총 26개국에서 107개 작품 응모

폴란드 아키텍츠 그룹 UNISM와의 합작 'Wooden Silhouette'

내러티브 아키텍츠(설계자 김시홍, 황남인 건축사)와 폴란드 아키텍츠 그룹 UNISM와의 합작 'Wooden Silhouette'가 에스토니아 도시 타르투의 다운타운 문화센터 국제 설계 공모 4위에 올랐다. 심사위원단은 "건축 콘셉트가 매우 명확하고 지붕의 풍경을 실루엣으로 차용한 발상이 다른 작품들보다 돋보였다"고 말했다.

내러티브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김시홍, 황남인 건축사)가 에스토니아 도시 타르투의 다운타운 문화센터 국제 설계 공모(Tartu Downtown Cultural Centre International Competition, Estonia)에서 4위에 올랐다.

제안작 'Wooden Silhouette'는 내러티브 아키텍츠와 폴란드 아키텍츠 그룹 UNISM와의 합작이다. 심사위원은 'Wooden Silhouette'에 대해 "건축 콘셉트가 매우 명확하고 지붕의 풍경을 실루엣으로 차용한 발상이 다른 작품들보다 돋보였다"고 말했다.

타르투의 다운타운 문화센터 국제 설계 공모는, 에마조기(Emaj gi) 강 인근의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위치한 도시 공간과 하나의 전체를 만드는 문화 센터 건축 디자인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올 1월 공모를 시작해 접수 마감인 5월까지 총 26개국에서 107개의 작품이 응모됐다. 최종 결선에 오른 6작품 중 당선작은 3+1 architects의 'PAABEL'로 선정됐다.

한편, 내러티브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는 '부안 예술공방(Buan Art Factory)'으로 2023 레드닷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레드닷 어워드는 iF 디자인 어워드,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ce Award)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불린다.

조아라 기자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민이 우수 설계자 뽑는다 '시민공감특별상'

2023 수상예정 9작품 중 투표 통해 최다 득표 2개 작품 선정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엠보팅 누리집에서 작품 제목 클릭

▶ 2023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예정작

부문	작품명	건축사사무소	설계자	건축주
공공	노원구청 로비 복합문화공간 '노원책상' 리모델링	구보건축사사무소	조윤희	노원구청
민간	엑셈 마곡 연구소	(주)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	김찬중	(주)엑셈
공공	산악문화체험센터	(주)건축사사무소 엠피아트	민현준	서울특별시
민간	생각공장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동관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공공	서울공예박물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용호	서울공예박물관
민간	콤포트서울	(주)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	문주호	(주)김희준 스튜디오
공공	BUNKER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	조진만 건축사사무소	조진만	동작구청
공공	Ecological Matrix : 생명의 그물	(주)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조남호	서울특별시
민간	LG 아트센터 서울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태집	LG전자

서울시가 지난 5월 공모를 시작한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의 1차 심사를 마치고 수상예정작 9작품을 공개했다. 전문가 심사와는 별개로 이달 말까지 투표를 통해 시민이 주는 특별상을 수상할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7월 30일까지 시 공식 설문·투표 페이지인 '엠보팅'을 통해 올해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예정작 중 '시민공감특별상' 2개작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mvoting.seoul.go.kr)과 모바일웹을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선호하는 3개 작품에 대해 회원가입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올해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에는 총 106작품이 접수됐으며, 그 중 9작품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 2차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가리는 한편 시민 투표를 통해 특별상 2개 작품을 별도 선정하게 된다.

'시민공감특별상'은 일상에서 실제 건축물을 가장 가깝게 이용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부터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 설계자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다. 건축전문가인 심사위원 평가와 별개로 투표를 통해 가장 큰 공감을 얻은 작품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남다른 수상의미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최종 발표는 투표 종료 후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건축문화제 누리집(http://saf.kr/)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9월 1일~10월 29일 열릴 '서울건축문화제' 기간에 작품이 전시된다.

건축상 시상식은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식과 동시에 서울건축문화제 첫날인 9월 1일 열리며 상장과 트로피,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기념동판이 주어진다.

박관희 기자

책꽂이

소설 '내 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생동감 넘치는 인물과 사건으로 건축 과정 보여줘

집 짓는 과정을 이야기로 다룬 책이 나왔다. 소설 '내 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는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김선동 건축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 김선동 건축사는 "건축을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 건축 소설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소설 '내 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는 사무소를 개소한 여성 건축사가 건축주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설계를 하고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에피소드로 보여준다. 개소부터 건축주와 미팅, 인허가 접수, 시공사 선정, 착공, 공사, 준공 접수, 사진 촬영 등 건축물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챕터별로 다뤘다. 방대하고 험난한 건축 과정을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사건으로 전달한다.

집짓기와 건축사 업무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소설 '내 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는 북크크(bookk.co.kr)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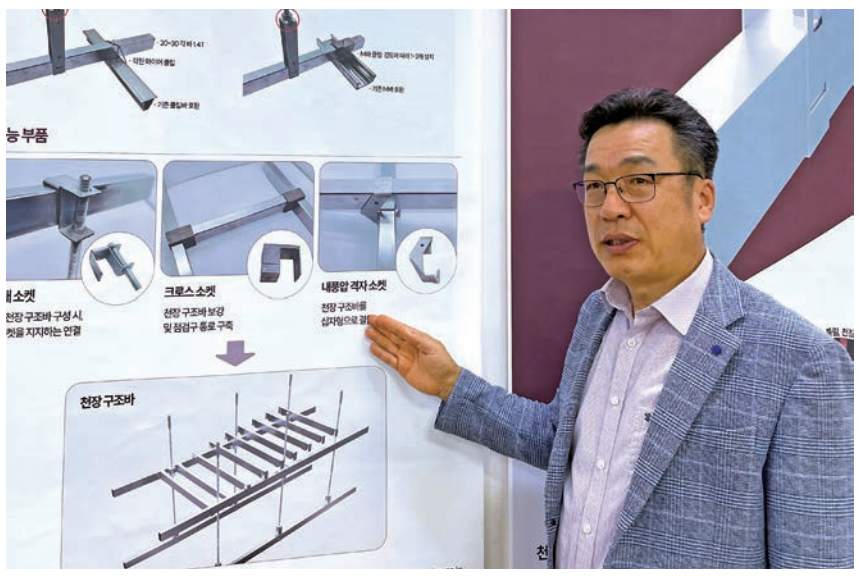
조아라 기자

주목! KIRA 건축추천자재업체

공간테크 정민시 대표, “내진용 경량철골시스템으로 안전과 천장관리기능 확보”

YES행거 체결기술로 5배 강도 증진, 시공성 확보하고 부품 수는 줄여

2023년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 제품 선정



공간테크 정민시 대표

경량철골구조는 천장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해 수직 하중을 견디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조, 소방, 통신 등의 장비가 천장에 설치됐고, 이를 관리하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천장의 관리가 관건이 됐다. 공간테크는 이처럼 복잡한 천장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고, 지진도 견디도록 경량철골구조를 개선했다. 더욱 안전한 천장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정민시 대표를 만나 제품개발 노하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지난 5월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건축자재로 선정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는데, 어떤 제품이 수상하게 됐는지 소개를 부탁합니다.

공간테크의 내진용 경량철골시스템이 이번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인지 2023년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 제품으로도 선정됐는데, 제품의 안정성·경제성·우수성까지 인정받게 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간테크의 내진용 경량철골시스템은 기존 시공성을 유지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면서도, 그간 기술적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천장관리기능을 가지고 있어 미래의 천장 경량철골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량철골구조의 활용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산업 건축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경량철골시스템은 안전성은 물론 천장 속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 역량을 포함하는 기능성, 효율성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공간테크의 내진용 경량철골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기존 경량철골구조는 주로 천장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수직의 일정 하중을 버티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천장에 전기, 통신, 소방, 난방, 공조 시스템 등 다양한 기계 설비가 설치되면서 천장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작업자가 경량철골구조를 밟고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테리어 시설의 하중까지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명, 에어컨 등을 설치하기 위해 구조바를 절단하지만 대부분 이를 보강하지 않으며, 관련해 정해진 시공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진용 경량철골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YES행거 체결기술 하나로 기존의 시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도를 5배 정도 증진시키고, 너트의 풀림을 방지해 부품수도 줄였습니다. 관리자가 구조바를 밟으면서 천장 속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구조바가 흔들리거나 이탈해 전체 천장 경량철골구조에 영향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경량철골시스템은 구조바로 강도에 최적화된 각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장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부품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일례로 구조바의 절단부 강도 보강과 하중 분산을 위한 크로스 소켓, 인테리어 천장 등의 수직 하중을 분산시키는 달대 소켓, 공항·지하철과 같이 외부 진동과 바람이 많은 곳의 보강을 위한 내풍압 소켓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 부품들은 작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시공했던 것들을 제품화 시켜서 편법 시공을 방지하고, 더욱 안전한 천장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Q. 한국인정기구(KOLAS) 등에서 내진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내진용 제품 개발에 주목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또 내진기술 적용에 따라 경제성·기존 제품과 호환성·시공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급규모의 지진도 더러 발생하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경량철골과 같은 건축 비구조요소도 내진 기능이 필수인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취지로 내진용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공간테크의 내진용 경량철골시스템은 올해 부산 지진방재센터에서 내진 테스트를 거친 결과 규모 8, 진도 12 규모의 지진에서 버틸 수 있는 강도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천장 경량철골구조의 핵심은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행거인데, 이 행거를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타제품과의 경쟁성을 고려하며 수차례 개선해왔고, 그 결과 강력한 내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공성,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행거 구조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경량철골시스템의 안전성, 기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테크의 내진용 경량철골시스템

실내 건축 공사를 22년째 해오면서 천장 공사에 사용하는 경량철골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품개발 과정에서 단순 내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기존 경량철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건축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집중했었습니다.

Q.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신제품 출시, 기술개발 방향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 부탁합니다.

내진용 경량철골시스템은 내진성은 물론이고 복잡·다양해지는 미래 건축물의 다양한 기계 설비 구조물의 유지·보수·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인테리어 구현이 가능한 안전 제품입니다.

공간테크는 건축문화 발전의 변화상을 반영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천장 무너짐 사고 예방과 천장 속 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 개발하며 천장 경량철골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내진용 경량철골은 기업마다 독자적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국가적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서라도 미래형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간테크는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의 완성으로 표준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간테크의 기술을 활용해 천장 경량철골이 설치되는 기존 범위를 넘어서, 무거운 마감재를 사용하는 대형 냉동고의 천장 시공을 위한 경량철골시스템, 실내 스마트팜과 같이 수직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하중 지지가 중요한 경량 구조의 시스템, 소방·전기·통신 등에 사용하는 풀림방지 달대행거를 개발 중에 있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관희 기자

김석환 건축사 ‘인왕산·백악산·북한산 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종로구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려

지축동에서 본 북한산 전경(78×540cm·한지 수묵), 그림=김석환 건축사

“그림을 그릴 때 현장 작업만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매번 큰 화판과 화구 등을 챙겨 산을 오르내리죠.”

오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인사아트센터 6층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인왕산·백악산·북한산 전’을 여는 김석환 건축사(터.울 건축사사무소)는 산에서 직접 그림을 이유에 대해 “산이 살아 꿈틀거리는 생생함을 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서울의 입지를 이루는 산천과 한양도성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려온 김석환 건축사가 이번에는 ‘인왕산, 백악산, 북한산’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자 전시를 연다.

조선 후기 그려진 한양도와 궁궐도가 입지 특성을 그림의 골격으로 나타내서 관념적이라면, 김석환 건축사의 그림은 사실적이고 자연적이다. 관념적 대상의 실제 모습을 담아내려고 한다는 그는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 길게 가로로 펼쳐 그린 그림들이 많다”며 “가장 긴 그림은 7.3m나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전시 때 “화강암 골기를 지닌 인왕산의 기세, 우뚝 솟은 백악산의 장엄함, 비봉능선과 함께 보현봉, 형제봉, 응봉능선으로 이어진 줄기가 백악산·인왕산과 어우러진 북한산의 깊이감과 산세의 풍미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산세를 장대한 크기에 현장의 필치로 담아낸 김석환 건축사의 생동감 있는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장영호 기자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여성위원회, WISET 취업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여성위원회는 5월 2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WISET 취업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일환으로, 건축 전공 여성 대학생·대학원생과 함께 건축 관련 전시, 건축물 답사를 진행했다. WISET 취업탐색 멘토링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이다. 여성위원회는 여성 건축사 양성을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협약을 맺고 11년째 멘토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월 1회에 걸쳐 건축사사무소 탐방, 건축물 답사, 직무특강, 진로상담 등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문 집필위원 및 학생기자단 위촉식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6월 14일 건축사회관 2층 김순하홀에서 김재록 서울시건축사회장과 김계란 신문편찬위원장, 신문편찬위원, 집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건축사신문 집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번에 위촉된 집필위원은 총 23명으로, 각 지역 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서울건축사신문에 가치 있는 정보와 의견을 담은 다양한 원고를 집필하게 된다.

집필위원 위촉식에 앞서 5월 17일에는 학생기자단 위촉식도 진행됐다. 1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기자단은 건축계의 생생한 여론과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게 된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시와 '하얀지붕'으로 녹색건축 실현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부산시와 6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34개소에 대한 '하얀지붕' 사업을 실시한다.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도 부산시와 함께 팔을 걷어붙인 것. 하얀지붕이란 햇빛과 태양열 반사 효과와 단열성이 있는 흰색계열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지붕 열기를 줄여 실내 온도를 4~5도 낮추는 건축공법이다. 일반지붕은 햇빛의 15%를 반사시키지만,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햇빛과 열을 75% 이상 반사시켜 건물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온도를 낮추어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원리다. 이 사업은 민·관이 힘을 합쳐 소규모 단독주택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차열 특수페인트를 무료로 시공해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녹색건축물 전환사업이다. 2019년부터 부산시건축사회와 노루페인트의 재능·재원 기부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BNK부산은행, 부산도시공사(SK E&S),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의 후원으로 작년 14개소였던 대상지를 상·하반기로 나누었으며 상반기에만 34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해 규모를 대폭 늘렸다. 노루페인트가 친환경 차열 특수페인트를 제공하고, 부산시와 부산건축사회가 BNK부산은행과 부산도시가스(SK E&S)의 후원을 받아 사업대상지에 시공한다. 시공에는 부산건축사회 임원을 포함한 13개 위원회, 자원봉사회원, 부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부산시건축사회 최진태 회장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얀지붕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 후원사들의 참여로 사업 규모가 대폭 커지게 됐다. 뜻깊은 일에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인천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MOU 체결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소속된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12일 인천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인천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지지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멘토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기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부금도 지원한다.

또한 협의회 소속 전문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법률, 의료, 주거에 관련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돕고 직업과 관련한 멘토 활동 등을 진행하며, 전담기관은 민간자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인품멘토단 운영 등을 지원한다.

협약식에서 김장섭 인천시건축사회장(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선배 시민으로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는 지난 2019년 4월에 인천시건축사회, 인천시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사)인천시민재단이 지역사회 공헌 및 인천 발전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결성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일본 나오시마 건축기행

대전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나오시마로 건축기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대전시건축사회 회원 2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건축기행에서 일행은 일본 현대건축과 디자인 관람을 통해 건축지식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울산대 건축학부 졸업전시회서 회장상 수여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23일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전시회 우수작품 출품자에게 울산광역시건축사회장상을 수여했다.

졸업전시회에는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신재억, 성인수 명예교수와 전시회를 담당한 유용현, 최정우 교수가 참석했으며, 울산시건축사회에서는 김원효 회장을 비롯한 허용 부회장, 서영호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울산시건축사회장상은 '도시속의 얽힘'이라는 작품을 전시한 건축학부 5학년 한지원 학생에게 수여됐다. 한편, 울산시건축사회는 매년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역 대학교에 전달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지난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설계 및 감리에 대한 상호 발전방향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방문

경상남도건축사회 오공환 회장과 집행부는 6월 13일 함양·거창·합천지역건축사회, 7월 4일에는 산청·사천·남해지역건축사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무가입에 따른 지역건축사회 역할 및 해체공사감리와 허가권자 지정 위탁업무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 공유됐다. 경남건축사회의 지역건축사회 방문은 지역건축사회 활성화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뤄졌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상반기 건축사 실무(전문)교육 실시

경상남도건축사회는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창원(창원대학교)과 진주(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에서 2023년 상반기 건축사 실무(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구조실무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전문교육 2과목으로 각 2시간씩 4시간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원 808명 가운데 482명이 신청해 450명이 이수했다.

한편, 경상남도건축사회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누어 건축사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확인은 대한건축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3 제주건축문화제 건축답사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제주건축가회·제주건축학회와 함께 '2023 제주건축문화제 건축답사'를 진행했다.

7월 15일 제주도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건축답사는 제주지역 건축물인 유동룡 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문학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답사를 하는 동안 건축물마다 전문가의 해설과 설계자가 직접설계 의도를 설명했다.

제주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양수현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건축답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주건축문화제가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건축사 건축답사 및 사진동호회', 건축답사 및 출사 행사

서울건축사 건축답사 및 사진동호회는 6월 17일 경기 북부(동두천·양주·의정부·동두천) 지역으로 건축답사 및 사진 출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동두천 자유수호박물관에서 답사 일정을 시작한 회원들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관람하고, 회암사지박물관과 회암사지 터, 무학대사탑 등을 답사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동호회는 오는 8월 경 인천 지역 사진동호회와 함께 인천 지역을 답사할 계획이다.

편집출판팀

흙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 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 〈특허공법-흙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 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환경부 환경 마크 획득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우수건축자재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목조건축 산책

이동흔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자연과 건축물의 연결 ④ _ 자연과 살아있는 유기체를 연상시키는 목재의 바이오모픽(Biomorphic) 비밀

목재 바이오모픽의 비밀

인간은 자연과 접촉 없이는 살 수 없고 자연을 가까이 두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 이를 두고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는 "자연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자연은 기쁨에서 기쁨으로 이어지며 우리 마음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남긴다."[1] 라고 했다.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될 필수 요소가 자연이다. 하지만 실내에서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대인들은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면서 자연결핍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자연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머릿속에 끌고 들어오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바로 건축이 해결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목재의 경우는 그 무늬의 패턴이 대자연의 에너지가 쌓여서 만들어진 산물로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난다.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서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나이테가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다. 그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 뇌의 뉴런 신경세포가 선에 집중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2] 뇌는 곡선과 윤곽을 따라가고,[3] 그리고 더 긴 곡선 패턴을 구별하기 위해 짧은 선의 부분 사슬로 나누어서 연결하고 있다.[4] 이러한 패턴 조건은 자연에서 자주 발생한다. 우리의 뇌는 이러한 패턴을 생물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바이오모픽(biomorphic)으로 해독한다.[5] 또한 옹이, 색, 명암, 그리고 다른 표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우리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들은 목재가 자연이라고 인식하는 반응을 확실하게 만든다.[6] 다시 요약하면 목재의 연륜과 무□결, 옹이는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이 계속되며 전체 구조가 자연을 닮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연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목재를 생물형태와 유사한 바이오모픽으로 간주한다. 그것이 촉각, 후각, 시각을 통해서든, 뇌는 무의식적으로 목재를 생명과 자연으로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용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편안한 반응으로 이끈다. 목재로 만든 물건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목재 자체를 자연의 일부로 여기고 있는 이유이다.

목재가 있는 공간에서는 자연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신체적 반응을 가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혈압과 심박수 감소, 따뜻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물과의 연관성 등… 생리적, 심리적으로 달콤한 감각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건축재료이다.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재료이다. 여기에 목재에는 다른 재료보다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스트레스 해소로 마음을 치유하는 도덕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자연결핍증 해소의 수단으로 실내에 자연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재료가 목재이다. 특히 목재 기반 건설 시스템은 환경, 인간의 편안함, 지속 가능성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목재는 건강상 혜택과 시대를 초월한 미적 가치 외에도, 촉각, 후각 또는 시각적 경험을 통해서 많은 다른 기능적 혜택을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탄소 회계, 삶의 질 향상 및 건축 경제 회복에 목조건축의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1) https://www.brainyquote.com/quotes/william_wordsworth_147031
2) Hubel, D. H., & Wiesel, T. N. (1968). Receptive field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of monkey striate cortex. Journal of Physiology, 195, 215–243, as cited in Gilbert, C. D. (2014). Intermediate-level visual processing and visual primitives (Chapter 27). In Kandel, E. R., Schwartz, J. H., Jessell, T. M., Siegelbaum, S. A., Hudspeth, A. J., & Mack, S. (Eds.). Principles of neural science (5th ed.). McGraw Hill.
3) Li, W., & Gilbert, C. D. (2002). Global contour saliency and local colinear interactions. Journal of Neurophysiology, 88, 2846–56. https://doi.org/10.1152/jn.00289.2002
4) Li, W., Piech, V., & Gilbert, C. D. (2008). Learning to link visual contours. Neuron, 57, 442–451. https://doi.org/10.1016/j.neuron.2007.12.011
5) Albright, T. D., & Stoner, G. R. (2002). Contextual influences on visual processing. Annual Review of Neuroscience, 25, 339–379. https://doi.org/10.1146/annurev.neuro.25.112701.142900
6) Vessel, E. A., personal communication in 2012, while at New York University Center for Brain Imaging.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원건축의 백미, 안동 병산서원(屛山書院)

병산서원 전경

안동 병산서원(安東 屛山書院)은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건립한 서원이다.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낙동강을 바라보며 있다. 그 강 너머 화산(花山) 아래 나지막하게 병산서원이 있다. 강은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화산 건너편에는 풍산 류씨(柳氏) 집성촌인 하회마을이 있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이곳 안동 병산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대표서원 9곳을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여,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병산서원의 역사

고려시대부터 사림의 교육기관이었던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豊岳書堂)을 1572년(선조 5년)에 서애 류성룡이 안동으로 옮겨오면서부터 병산서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방 유림의 자제들이 모여 공부하던 곳으로, 고려말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왕의 행차가 풍산을 지날 무렵, 풍악서당의 유생들이 난리 중에서도 학문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왕이 크게 감동하여 많은 서책과 사패지(賜牌地)를 주어 유생들을 더욱 학문에 열중하도록 격려하였다.

200년이 지나면서 서당 가까이에 가호가 많이 들어서고 길이 생기면서 유림이 모여 서당을 옮길 곳을 물색하는 중에 서애 류성룡이 부친상을 당하고 하회에 와 있을 때 그 일을 류성룡에게 문의하니, 병산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권하게 되었고 유림은 선생의 뜻에 따라 1575년(선조 8년) 서당을 병산으로 옮기고 '병산서원'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1871년(고종 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렸을 때에도 훼철(毁撤)되지 않았으며, 유림 선현을 모시고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인 보수가 행해졌으며 강당은 1921년에, 사당은 1937년 각각 다시 지어졌다. 매년 3월 중정과 9월 중정에 향사례를 지내고 있다.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애 선생의 문집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 1,000여 종 3,000여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

측면에서 바라 본 만대루

휴식과 강학의 공간, 만대루

병산서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도로로 되어있다. 낙동강을 따라서 굽이굽이 들어가면 고요하게 펼쳐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을 만난다. 서원의 앞으로 낙동강이 휘돌아 흐르고, 낙동강에 비친 병산은 한 폭의 수묵화를 떠오르게 한다.

풍수지리로 보면 병산서원은 주산이 화산이고 좌, 우청룡의 맥이 흐른다. 마주 보는 병산은 안산(案山)이고 북쪽 원경의 학가산(鶴駕山)이 조산(祖山)이 된다. 그 품에 앉은 서원 앞으로 강이 흐르니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이다. 그래서 서원 중에서도 '자연과 서원의 조화'로 병산서원을 최고로 꼽는다.

여름의 병산서원은 입구부터 화사한 배롱나무가 반긴다. 처음 들어서는 복례문은 낮은 솟을삼문이다. '자기를 낮추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다.'라는 복례의 뜻을 새기고 들어서면 병산서원의 백미인 만대루가 보인다. 만대(晩對)'는 두보(杜甫)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의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기 마땅하고'하는 '취병의만대(翠屛宜晩對)'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만대루 앞에 서면 정갈한 7칸의 기둥 사이로 강과 산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서원의 중심인 입교당의 마루에 앉으면 만대루가 한눈에 들어온다. 병풍처럼 펼쳐진 경치가 기대 이상의 감동과 차경(借景)의 감흥을 선사한다.

병산서원의 모든 건축은 자연과 인간의 상생(相生)이다. 그 바탕은 입지의 자연성과 경관의 개방성을 통해 성리학이 추구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에 닿아있다. 여기에 배향 인물인 서애 류성룡의 사상과 삶의 철학이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건축설계·감리는 공평하게 혜택 받는 公共財

건축과 삶

이창율 건축사
(주)GA건축사사무소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광주광역시건축사회〉

1963년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는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 회원이 되도록 했다. 2000년대 들어서며 의무가입 조항이 삭제되고 임의가입으로 전환되었다. 23년이 지난 지금 건축사등록원 설립과 의무가입으로 여러 건축정책개발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공익성이 우선되는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는 협회 의무가입으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건축사와 함께 의무가입을 폐지했던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협회도 환원된 상태이다. 지금의 건축설계·감리 시장은 지나친 자율경쟁과 공적 기능 약화로 인해 공공연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생태계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따라서 의무가입을 통해 전문직단체로서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윤리의식 강화 등 공적 기능과 자정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건축설계·감리시장은 국가, 사회적 재화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재이다. 이 공공재의 보통 시장 대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의 속성은 어떤 회원의 소비가 다른 회원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회원이 동시에 편익을 취할 수 있는 비경쟁성, 비선택성의 재화이다. 건축설계·감리 대가는 소유 주체보다 더 큰 의미의 공평하게 혜택받는 공공재이다. 경제학에서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갖춘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비경합성은 누군가 단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으며, 비배제성은 재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을 소비활동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을 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알고리즘이 조합되는 AI 시대이다. 건축사는 언제까지 설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심의 받고 인·허가와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이 바로 인간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 방대한 데이터를 체크리스트가 정한 AI 알고리즘에 의해 각종 심의, 인·허가, 사업승인을 받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기능이 필요할 때이다. 학회 등에서 일부 준비 중에 있으나 건축사협회가 이를 주도하게 되면 모든 건축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년에 약 30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을 득하고 있다. 필자는 가구당 10만원을 AI 기능을 관리하는 주체에 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건축사협회는 공동주택 심의 업무에서만 1년에 300억 원을 비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모든 회원의 "공공재"가 된다는 말이다. 물리적인 의무가입으로 건축사가 하나가 된다면 협회에는 그 경제적인 책임이 지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전 집행부는 등록원을, 현 집행부는 의무가입을, 다음 집행부는 협회와 회원을 경제적으로 살찌게 하여야 한다. 지금 바로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할 때이다.

시로 보는 세상

주저흔

- 박성준

숲이 나를 불렀으니 이제 좁은 몸속
옷장에 걸려 있는 바람들
흐물거리는 빗장뼈를 밤의 내부로 가라앉히네
두꺼운 승모근이 옷걸이마다 붙잡고 있던 바람
꼬리 아홉 개 달린 별똥별
여우야 가지마 가지마 나는 밤을 만지려고
그림자에 스며들어 누웠네
뻐꾸기 시계를 끌어안고 잠든 사내가
옷장으로 들어가 바람이 되었다는 소문과
그 소문에 오독당한 귀들이 떠오르네
나사가 삐걱거리는 내 복부를 열어젖히고
보았을까 그런 밤의 축축한 잔해들
혈거하는 울음들이 무릎 꿇은 바람을 일으켜
여우 굴에 벽화를 그리네, 밤과 내통한 빛이 그리워
내 갈비뼈, 어두운 물속에서 가만히 떠올랐던가
울음이 악보를 찾아가듯 숲이 밤을 찾아가
어두운 옷장 속 빈 것들이 나를 기다리네
깜빡깜빡 허공을 긋고 가는 저 불빛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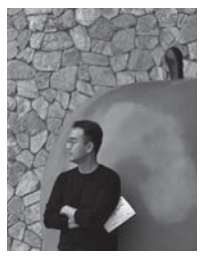
- 박성준 시집 '몰아 쓴 일기' 중에서/ 문학과지성/ 2012

연금술에서 납을 금으로 변성하려면 먼저 자신의 물질이 사라져야 한다. 여기서 '자신'은 원래 물질인 납을 뜻하기도 하지만 연금술적인 변성은 필연적으로 연금술사 자신을 죽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육체를 죽여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무속에서 말하는 신내림의 병적 증상도 역시 같다. 이 시에 나타나는 해부학적인 진술들은 육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늙은 왕이, 타오르는 불속에서 정화 되어 젊은 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함성호·시인〉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발 언 대 |



한현수 건축사
(주)에스케이엠 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아주 작지만 중요한

올해로 실무를 시작한지 어느덧 20년. 운 좋게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설계할 기회가 주어졌다. 건축 및 인테리어의 기획, 계획 및 실시설계, 인허가, 감리 등의 실무와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협력사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건축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지난 20년에 비해 현시점의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COVID 19로 인해 사회와 가족 간의 공간적 격리를 경험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로 지진, 폭우,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일례로 원자재 값 상승, 물류비 증가는 건축 자재비와 공사비 상승에 원인이 되어 많은 건설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고,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신규 프로젝트들의 PF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딜레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 설계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프로젝트 중단과 무기한 일정 연기 등 건축사사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도구인 챗GPT 등 거대 언어모델(LLM)의 등장은 사회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픽 분야에서 PPT를 생성해주는 Gamma, DALE-E, Art Breeder, DeepArt.io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Photoshop, 3D tool에서도 AI가 접목이 되면서, 대안을 생성하고 건축사의 설계와 비교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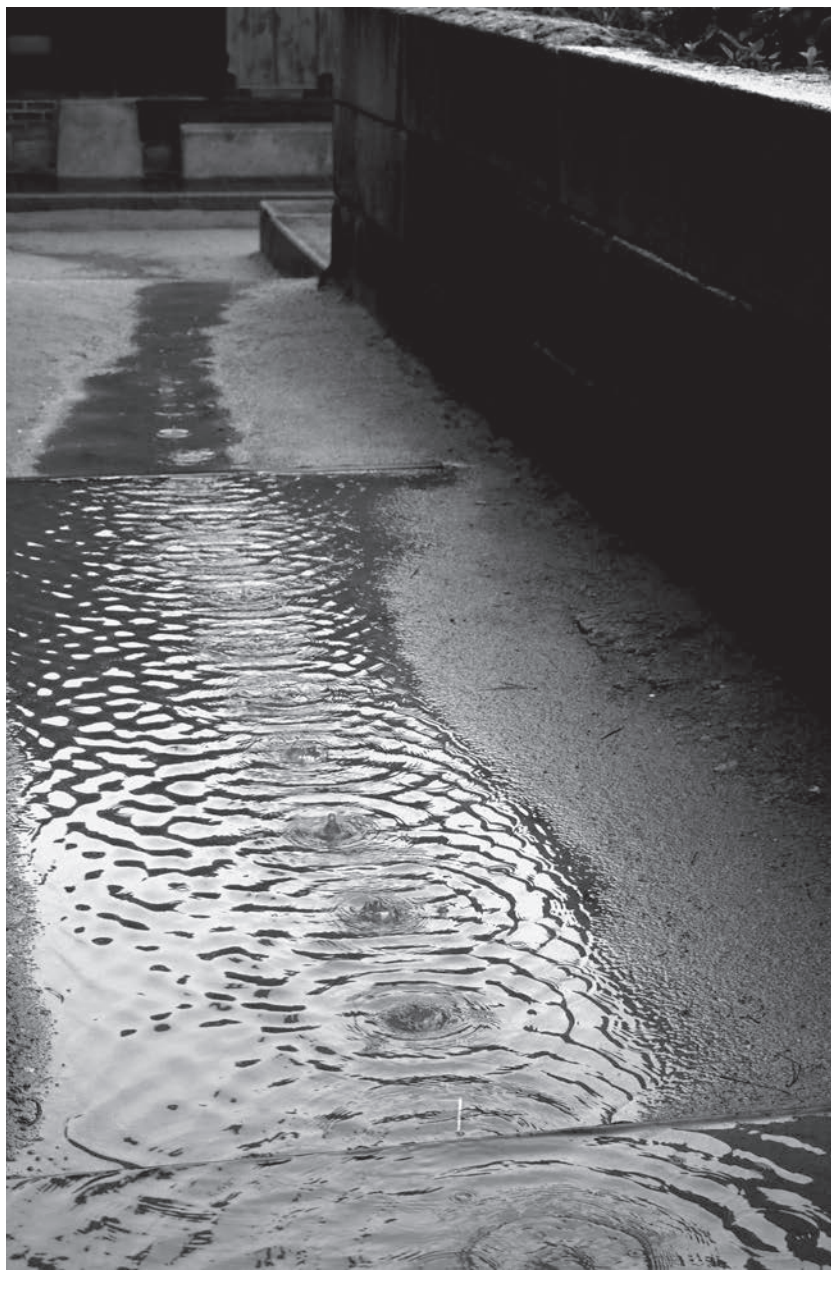
필자 또한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건축사의 역할 중 사업성, 법규, 대안검토 등의 기능위주의 건축설계를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실현이 되어 상용화 되고 있고, 건축사사무소 82%가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인 현실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설계방식에 획기적인 효율을 가져올 것인지, 오히려 변화에 둔감한 설계 업계를 잠식하고 건축사의 존재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인지 적지 않은 두려움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건축사 현장에 나오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정답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반면 거대한 담론보다는 오랫동안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께서 언급했던 "건축 설계는 전체 건축과정에서 아주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곱씹으며 오늘도 묵묵히 건축사로서의 삶을 살아보려 한다.

포토 에세이

자연과 처마가 만드는 동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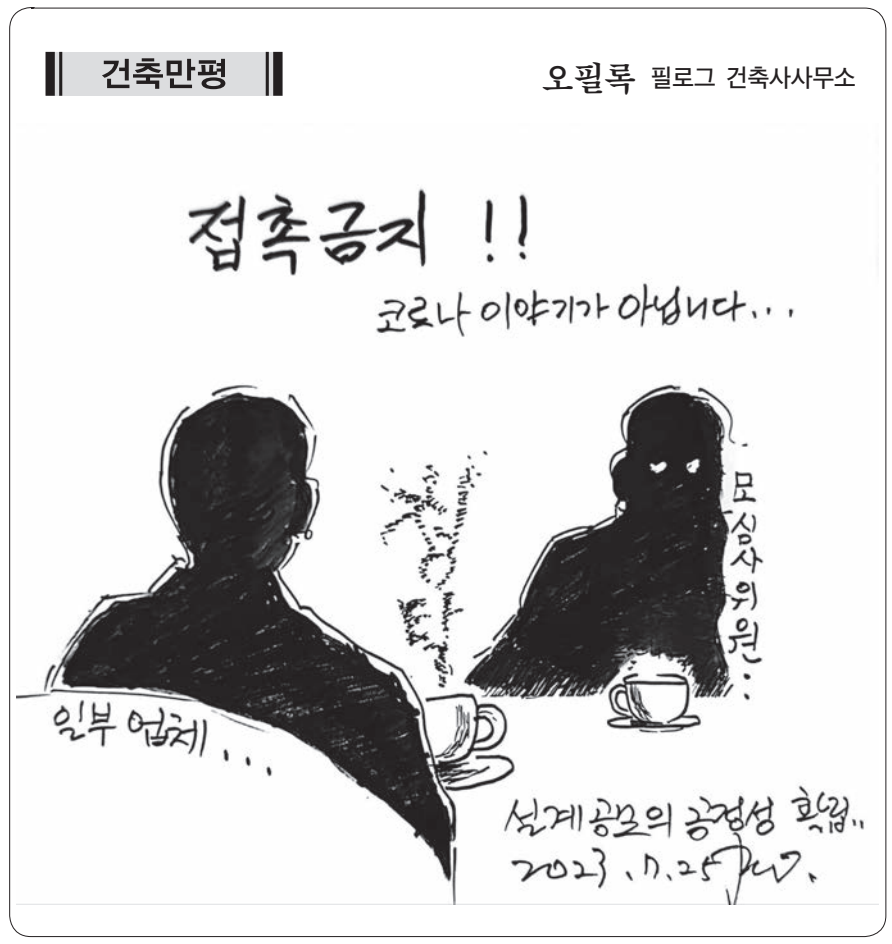


비가 내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쪽의 뜨거운 열기와 비로 인한 높은 습도는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기와지붕으로 내리는 비가 처마 끝을 지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암키와의 골을 따라 떨어지는 빗물은 석축 옆 바닥에 흐르는 빗물과 만나 여러 동심원을 만듭니다. 자연과 기와가 만드는 동심원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무더운 여름의 불쾌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 오는 오후 내리는 빗속 동심원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봅니다.

정익재 건축사 · KN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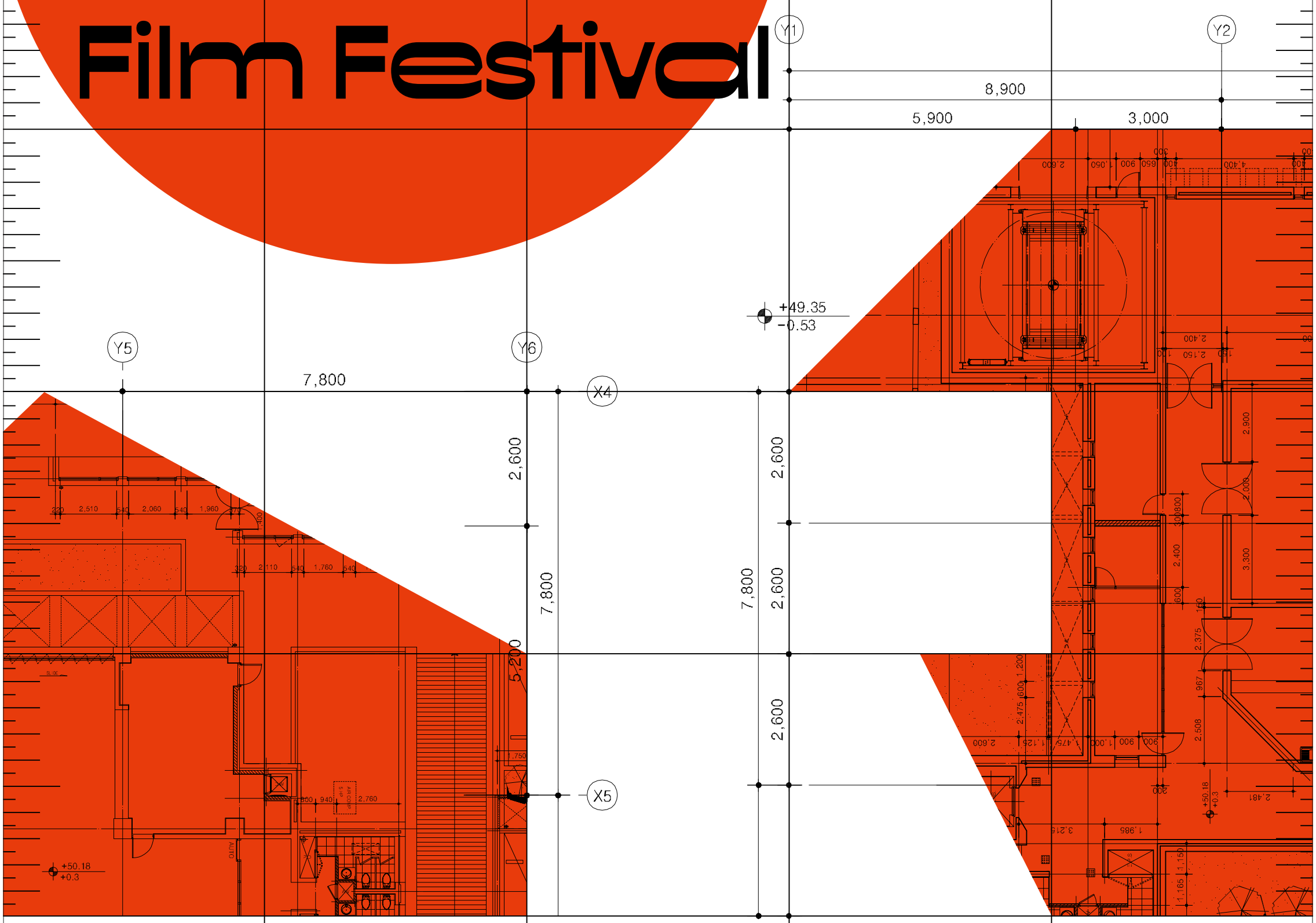
건축만평

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14,6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7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다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The 15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스케일
SCALE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2023.9.6 - 9.17

아트하우스 모모, 네이버TV

주최·주관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kofic 영화진흥위원회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 건축사공제조합 CERTIFIED ARCHITECTS FINANCIAL COOPERATIVE